

타미플루, 저코스트 양산기술 개발

이화여대, D-마니톨로 시키미산 대체 ... 2016년 이후 안정공급 가능

타미플루를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화여대는 고수영 교수(화학·나노과학) 연구팀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싸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10월7일 발표했다.

스위스 Roche가 생산하는 타미플루는 중국 원산의 향신료인 팔각(八角)에서 추출하는 시키미산이라는 고가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로 대량 보급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수영 교수팀은 나무 수액 등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D-마니톨이라는 대체재를 토대로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법을 고안했다.

또 합성 효율을 높이고자 D-마니톨을 원소 수준으로 미세하게 해체해 최종 결과물의 화학구조에 맞게 재 배열하는 신공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영 교수는 “순수 국내 기술로 타미플루를 대량 생산하는 길을 열어 해당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타미플루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9월 말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8>